

## “어느 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누가복음 19:1-10)

살다 보면 주위에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여럿 보게 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주위 평판도 괜찮고, 보기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 갑니다. 우리도 보통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부를 쌓고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의 축적 자체는 당장은 우리를 신나게 하고 편리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래 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소위 ‘성공한 사람’ 하나를 만나셨는데,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주후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으로 직업은 세리, 즉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동쪽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침략자요 정복자인 로마에 바치고 또 일부는 자기가 가졌는데, 그는 이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입니다. 비록 키는 작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웠고 방황했으며 친구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여 공허하게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나날이 속은 답답하고 시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는 운명의 날이 찾아 왔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알려진 랍비가 그의 마을을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삭개오는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고, 그 예수를 먼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마음 속의 응어리가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 군중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서 있던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그 순간 그는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했고, 그의 운명은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삭개오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려고 노력하고, 성공을 지향하며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메마르고 공허합니다. 성공지향적인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점점 여러 심각한 모습, 즉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족, 주변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공황장애 등 내적인 문제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삶이 힘듭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이런 내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내 삶의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다시 새로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삭개오를 보며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믿음의 성장이란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바램, 즉 갈망이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우리 안에 순수하고 단순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밖으로 나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이런 바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바램은 고백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제 삶에 지금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가진 문제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 놓습니다.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영혼의 갈망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바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영적 갈망과 열정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사실, 삭개오는 부자며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키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물론, 키가 작아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 더 잘 보고 싶은 의도도 있었겠지만,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나뭇잎 뒤로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안으로는 내면이 허전하였고, 밖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더이상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무 위로 어려운 한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좀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한 발을 어디로 내딛어야 할까요? 그것은 한동안 먼저 쌓인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다시 나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그 운명적인 날,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보통, 삶의 위기가 오거나 죽기 전에 간신히 이것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의사가 나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삶을 정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6 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먼저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숨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삶이 6 개월 남았다고 생각하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 번 묻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신앙,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날 그 무엇 ‘유산(legacy)’입니다.’**

삭개오는 그 날, 삶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만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했습니다. 결단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세리로서 취한 물질과 돈을 다시 돌려주기로 결단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동안 부정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기로 새로이 결단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란 한 사람의 지갑이 거듭날 때 이루어진다 (One is not fully converted until his wallet is converted)!”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즉,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 명세서와 bank statement 를 살펴보면,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즉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나 책북은 단순한 재정문서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고백서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화장기’를 걷어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신앙고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달 혹은 지난 1 년, 신용카드 명세서와 책북을 꺼내어 한 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새로 만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그리스도를 정중앙에 놓고, 마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얻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다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씩 새로 매겨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 [속회자료]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528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말씀읽기 누가복음 19:1-10 절을 읽습니다.
-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내 삶에서 '순수한 영혼의 갈망'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2.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만났듯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어 둘어야 하는 한 걸음은 어떤 모습인가?
  3.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내 삶의 우선 순위는 (재물, 가족, 직장, 건강, 신앙 ... )?
  4. 주님께서는 우리의 장점만이 아니라 부족함도 들어 사용하신다. 내어 드려 쓰임 받고 싶은 나의 부족함은?
  5. 삭개오의 회심과 결단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시사하는가?
-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453 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 주기도문